

## 신사구체염에서 Antineutrophil Cytoplasmic Autoantibody의 의의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교실, 내과학교실\*

최영진, 윤영석\*, 김병기, 김선무, 진동찬\*, 김용수\*,  
박인석\*, 최의진\*, 장운식\*, 방병기\*, 심상인

항호중구 세포질항체(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: ANCA)는 폐계너 육아종증, 결절성 다발성동맥염, 및 괴사성 겸상사구체신염등의 전신적괴사성 혈관염 의 진단에 유용한 혈청학적 지표로서 최근 알려져왔다. 에탄올 및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호중구를 이용하여 간접면역형광법으로 관찰하면 3가지의 특징적인 염색양상이 관찰되는데, 세포질에 양성인 C-ANCA, 핵주위 또는 핵전체에 양성인 P-ANCA 및 GS-ANA가 있다.

저자들은 신사구체염에서 ANCA의 발생빈도와 임상 및 병리적 의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 신장질환이 있는 1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, 그중 72명은 신장생검으로 병리진단이 확인되었다. ANCA는 121명의 환자중 26명(22%)에서, 조직진단이 내려진 72명중에서는 15명(21%)에서 관찰되었다. 이들 15명은 ANCA관련 사구체신염으로 생각하였는데, pauci-immune 사구체신염이 7명(47%), 면역복합체매개성 사구체신염이 8명(53%)이었고, 이들중 5명(33%)은 낭창성 사구체신염이었고 3명(20%)은 비낭창성 사구체신염이었다. Pauci-immune 사구체신염 환자 7명중 6명(86%)에서 C-ANCA, 1명(14%)에서는 P-ANCA이었다. 5명의 낭창성 사구체신염 환자중 4명(80%)에서 P-ANCA, 1명(20%)에서 GS-ANA가 관찰되었으며, 3명의 비낭창성 사구체신염 환자에서는 모두 C-ANCA가 관찰되었다. 또한 신장외 병변의 유무에 따른 염색양상의 차이를 관찰하였는데, 신장의 병변이 없는 5명(34%) 모두에서 C-ANCA가 관찰되었고, 신장의 병변이 있는 10명(64%) 중에서는 PANCA가 5명, C-ANCA가 4명, GS-ANA가 1명이었다. 병리조직학적으로 ANCA관련사구체신염환자에서 국소적 또는 미만성의 경(crescent)형성이 다양하게 관찰되었는데, 평균적으로 전체사구체의 24%에서 관찰되었으며, 특히 pauci-immune 사구체신염에서는 37%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.

결론적으로, ANCA는 전체 신질환 환자 121명중 22%, 병리진단이 내려진 사구체신염 환자 72명중 21%에서 발견되었으며, C-ANCA는 신장외병변의 유무와 상관없이 pauci-immune 사구체신염 및 비낭창성 면역복합체매개성 사구체신염에서 자주 관찰된 반면, P-ANCA는 낭창성 사구체신염에서 주로 관찰되었다.

## 루프스신염의 임상적고찰

전북의대 내과학교실

김 원, 이창환, 박성광, 강성귀

전신성 홍반성낭창(SLE)은 신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원인불명의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13-40세에 60%이상에서 호발하며, 10-30대에 여성에서 95%를 차지하고, 흑인에 많이 발생하나 미국내 Asian에도 많이 발생하며, 우리나라에도 최근 드물지 않은 병으로 알려졌다. 임상적으로 루프스신염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신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는 90%이상에서 관찰된다. 루프스신염에 대한 조사 관찰이 필요하여 1979년부터 1992년 말까지 14년간 본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총 29,764명 환자 중에서 SLE로 진단받은 예가 40예로 전체환자의 0.13%를 차지하였다. 등기간에 추적 관찰이 가능한 36예 SLE 환자중에서 단백뇨(+) 이상이고 혈청 creatinine 1.5 mg% 이상인 루프스신염의 증상을 보였던 32예(88.9%)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. (1) 연령분포는 18-67세이고 평균연령은 31세이었으며, 남자 3예 여자 29예로 여자가 많았고, 20대 이하가 69%를 차지하였다. (2) 신생검상 미만성 증식성신염이 70%로 가장 많았다. (3) Steroid 단독투여군에서 완전관해가 28%, 관해가 없었던 것은 20%, 재발한 경우는 48%, 말기신부전으로 이행은 4.8%이었다. 그러나 Steroid와 Endoxan 병합투여군에서는 완전관해가 54.5%, 관해가 없었던 것이 9%, 재발한 경우는 36.3%가 있었다. 이상의 결과로 루프스신염은 부신피질호르몬과 cyclophosphamide의 병합요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.